

6/ 아베 시대 야당의 분열과 갈등:

정책 대립과 야당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의석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의 가두연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Crowd_and_Party_Leader_Edano.jpg

한의석(韓義錫)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강의 전담교수를 역임했으며,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연구로 “Book Review: Understanding Governance in Contemporary Japan by Masahiro Mogaki”(Pacific Affairs 94(1), 2021), 『일본의 정치체제와 제도』(명인문화사, 2020), 『공공외교의 이해』(명인문화사, 공저, 202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1.25.150>

1. 서론

의회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1955년 설립된 자유민주당이 1993년까지 38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일당우위 정당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55년 체제'로 불리던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1993년 6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끝나게 되었다. 이후 비자민(非自民) 연립정부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자민당은 55년 체제에서 최대 경쟁 정당이던 사회당과의 연립을 통해 집권당의 지위를 되찾았으며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우월적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1990년대 말 결성된 민주당은 야당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 양당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민주당은 집권기(2009~2012)를 통해 분열하고,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에도 이합집산을 계속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아베 집권기에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며 55년 체제에서와 같은 우위를 확고히 했다. 정권교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일당우위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양당제 또는 다당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의 사례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장기간 일당우위를 지속했던 경우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이나 인도의 국민회의와 같이 소수에 불과하다.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 우위의 재구축 또는 일당우위체제로의 복귀의 주된 이유로 아베-자민당의 정치·경제적 성과나 지지 동원 전략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야당의 분열과 유권자의 지지 획득 실패 측면 또한 중요하게 작동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55년 체제하에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민당의 일당우위가 자민당의 능력과 성과는 물론 '야당 실패'의 결과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당의 경직된 정치이념이나 노조(총평)에 대한 과도한 의존, 당내 파벌 갈등, 중선거구

제에 의한 야당 분열 효과 등이 야당 측면에서 자민당 우위의 요인이었다.¹ 55년 체제 붕괴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샤이너의 연구는 자민당의 후견주의와 재정집중화(fiscal centralization), 제도적 보호 등이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어진 반면 야당은 이를 극복할 만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 충원마저 쉽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² 하지만 자민당의 후견주의적 정책 및 정치 행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2009년 민주당의 집권은 통합된 야당이 자민당의 우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사건이었다.

야당 요인을 아베 정권기 자민당의 우위의 주요 변수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왜 야당은 자민당에 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 둘째, 왜 야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했는가? 이 중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민당과의 비교 관점에서 유권자 연계 방식이나 선거전략, 후보자 충원 문제, 그리고 자민당의 정책성과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 공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적이지 않은 선거제도(소선거구제)가 시행되는 경우 단일 정당의 우위 지속과 종식에 야당들의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³ 야당 분열(통합)이 자민당의 우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1994년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소선거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당 통합이 필수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협력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 공명당과 달리 야당은 집권 민주당 시기 이후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아베 집권기의 야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는가?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통합과 분열은 당내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되

1 권순미,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2003; 송석원, 「일본 사회당의 쇠락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42집, 2007.

2 Ethan Scheiner, *Democracy without Competition in Ja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 Adam Ziegfeld & Maya Tudor, "How Opposition Parties Sustain Single-Party Dominance: Lesson from India," *Party Politics* 23(3), 2017, pp. 262~264.

어 있다.⁴ 따라서 제도적인 요인이나 선거결과와 같은 외적 요인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정당 내부의 파벌 정치, 당내 계파 간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성, 정당 리더십과 같이 행위자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정당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

이 글은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이후 야당으로 돌아간 민주당 세력이 분열된 이후, 계속된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파적인 수준의 통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및 주요 정치인들 간의 정책 대립이 분열의 주된 원인이자 선거협력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야당 통합의 틀 속에서 공산당에 대한 입장 차이가 통합의 저해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야당 세력의 분열과 느슨한 협력을 배경으로 아베 집권기의 자민당은 선거에서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2. 민주당의 집권과 분열

1) 민주당의 성장과 정권교체

1996년 처음 창당 시 유럽형 사민주의를 지향했던 민주당은, 1998년 신진당과 통합하면서 진보적 성향이 약화되었다.⁶ 2003년에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자유당이 합류함에 따라 민주당의 보수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내에 이념적 균열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⁷ 정당통합 효과는 민주당 의석의 증가로 이어졌지만,⁸ 여러 세력들이 결합하면서 이념·정책적인 일관성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4 주인석, 「정당의 분열과 통합: 기원적 특징과 조직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2집 1호, 2012, 136쪽.

5 박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2009, 118~122쪽.

6 정미애, 「민주당의 '중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진창수·신정화 엮음,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오름, 2014, 164쪽.

7 박철휘, 「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2006, 287~290쪽.

8 박철휘, 「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288쪽.

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유사하게 공공사업의 축소나 시장원리 확대, 작은 정부 및 민영화 등을 강조했던 민주당은 2005년 9월 총선에서 자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고이즈미의 인기에 밀려 참패했다. 이후 당 대표에 임명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가 거짓 이메일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자 오자와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2006년 4월 당대표 선거에서 오자와는 하토야마 그룹, 구 사회당계 그룹 등의 지지를 기반으로 간 나오토(菅直人)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2006년 오자와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민당과 차별화된 정책들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이후 격차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 생활이 제일’을 내세우며 압승을 거두었다. 오자와는 2008년 9월의 당대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지만,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며 2009년 5월에 사임하게 되었다. 오자와의 사임으로 실시된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하토야마가 하토야마 그룹 약 30명, 오자와 그룹 약 50명의 지지를 기반으로 124표 획득하여 대표로 선출되었다. 노다 그룹, 마에하라 그룹, 간 그룹, 구 민사당·구 사회당 그룹 지지를 받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는 95표를 획득했다.⁹ 이후 2009년 8월 30일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집권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선거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치주도’를 강조했으며, 공공사업의 축소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내걸었다. 하토야마 정권은 오자와 대표 시절의 이념과 정책 노선이 반영된 2009년의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¹⁰

2)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

통합된 야당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당이었지만, 정권 획득 이후에도 다양한 이념적·정책적 배경을 가진 그룹들이 여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

9 『朝日新聞』, 2009. 5. 16.; 심미정,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박철희 외,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75쪽에서 재인용.

10 심미정,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78쪽.

〈표 1〉 민주당의 주요 그룹(2011년 현재)

그룹명	리더	의원 수 (양원 합계, 복수 가입)
일신회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111
국가형태연구회	간 나오토(菅直人)	60
민사협회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46
정권공약을 실현하는 모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42
능운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35
화제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26
청산회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26
신정국간담회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	25
정권전략연구회	하타 쓰토무(羽田孜)	14

출처: 경제회, 『민주당의 조직과 지지기반, 그리고 정치자금』, 진창수·신정화 역음,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오름, 2014, 72~74쪽; 정혜윤, 『일본민주당과 렌고 간 연계 형성과 지속의 정치과정』, 『국제정치논총』 58집 2호, 2018, 222쪽.

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복수의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내 권력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표면화되지 않았던 내부 갈등은 집권 이후 선거 공약의 이행과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토야마 정부에서 당 간사장에 취임한 오자와가 정책조사회를 폐지하고 의원입법을 금지하는 등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불만 또한 증가했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된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동반 사임한 이후, 당 운영방식이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당선이 유력했던 간 나오토는 당대표 선거 하루 전인 2010년 6월 3일 회견에서, 사임한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당분간 조용히 있는 편이 좋다”고 말하며 거리를 두었다.¹¹ 6월 4일의 당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는 중·참의원 423명 중 291명의 지지를 획득하여 다루토코 신지를 제치고 총리에 취임했다. 간 총리는

11 『朝日新聞』, 2010. 6. 3. <http://www.asahi.com/special/minshu/TKY201006030340.html> (최종검색일: 2021. 3. 6.).

6월 9일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세금을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 일본의 재정 상황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재건을 위한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¹² 간 총리는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재무대신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국토교통대신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으로 오카다를 임명했으며 민주당 간사장으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를 기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오자와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들이었다. 간은 또한 오자와 간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당내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정책조사회를 부활시켰고, 오자와가 금지시켰던 의원입법이 가능하도록 했다.¹³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간 총리는 6월 17일 매니페스토 발표 회견에서 자민당이 공약에 담은 소비세 10% 인상안을 참고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2009년 8월의 총선에서 “우리가 집권하는 4년간 소비세 증세가 필요 없다”고 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¹⁴ 세금 인상 자체가 선거 판세에 부정적인 요인일뿐더러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 약속했던 정책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¹⁵ 2010년 7월 11일의 참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10석이 줄어든 44석을 획득한 반면, 자민당은 13석이 늘어난 51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의 개선의석과 비개선의석의 합이 106석으로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의석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했다. 즉 참의원에서 과반수인 121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분점국회(ねじれ国会)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자민당을 탈당한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가 설립한 민나노당(みんなの党)이 10석을 획득하여 돌풍을 일으켰다.

12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10. 6. 8.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1236451/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6/08kaiken.html>(최종검색일: 2021. 3. 6.).

13 박철희,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7쪽.

14 『朝日新聞』, 2010. 6. 17. <http://www.asahi.com/senkyo2010/news/TKY201006170435.html>(최종검색일: 2021. 3. 6.).

15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보』 47집 2호, 2013, 151~152쪽.

참의원 선거 후인 2010년 9월 14일 치러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와 오자와가 맞붙었다. 간 총리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정상의 문제로 매니페스토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¹⁶ 이는 집권 당시 민주당 공약을 주도한 오자와의 정책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하토야마 그룹의 지지를 받은 오자와는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마에하라, 노다 그룹 등의 지지를 받은 간과 비슷한 득표력을 보여 주었지만, 지방의원 및 일반당원 투표에서는 참패하여 낙선하게 되었다.¹⁷ 간은 선거 후 구성한 2차 개조내각에서도 반(反)오자와 인물들을 대부분 유임시켰으며 간사장에는 오카다를 임명했다. 특히 당내 화합을 위해 각 그룹의 의원들을 골고루 입각시켰지만 오자와 그룹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했다.¹⁸ 반면 자민당 정권에서 수차례 장관직을 역임했던 야당 의원으로 증세론자인 요사노 가오루(与謝野馨)를 경제재정 담당대신으로 임명했다.¹⁹

한편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1년 6월 1일 자민당과 공명당, 일어나라일본(たちあがれ日本) 야3당의 내각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민주당 내의 오자와 그룹이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지만,²⁰ 하토야마 전 총리 등과의 회담을 통해 당내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부결되었다.²¹ 이후 간은 퇴진의 전제 조건으로 적자국채 발행법안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제시했는데, 자민당과 공명당은 통과 조건으로 2009년 민주당

16 <https://jp.reuters.com/article/idJPJAPAN-17223720100914>(최종검색일: 2021. 3. 6.).

17 민주당 홈페이지, <https://www.dpj.or.jp/article/18859>(최종검색일: 2021. 3. 6.).

18 심미정,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85쪽.

19 박철희,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40쪽.

20 『日本経済新聞』, 2011. 6. 1.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0102G_R00C11A6000000/(최종검색일: 2021. 3. 7.).

21 『日本経済新聞』, 2011. 6. 2.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0202D_S1A600C1000000/(최종검색일: 2021. 3. 7.).

매니페스토의 핵심 공약이었던 보편적 복지 정책들의 축소 및 폐지를 요구했다.²² 간 총리와 오카다 간사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자 오자와 전 대표는 이를 비판하면서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²³

간 총리가 물러난 2011년 8월의 당대표 선거에 5인의 후보자들이 출마한 가운데 노다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가 2차 결선투표에 나섰다. 1차 투표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반대하는 가이에다가 하토야마와 오자와 그룹의 지지를 받아 노다를 앞섰지만, 2차 투표에서는 노다가 마에하라와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총리로 취임한 노다는 9월 13일의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다.²⁴ 이후 노다 정부는 소비세 인상 논의를 구체화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했다.²⁵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를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노다 총리 및 민주당 지도부와 농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오자와 그룹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²⁶

2012년에 소비세 증세 법안을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노다에 대한 오자와 그룹의 반대가 커지고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자, 노다는 자민당 및 공명당과의 협력을 모색했다.²⁷ 증세안에 대해 민주당 일부는 물론 다른 정당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6월 14일 열린 ‘소비대증세(消費大増税) 체결에 반대하는 초당파 국민집회’에 하토야마 전 총리, 민나노당의 와타나베 대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3당은 2012년 6월 15일 소비세 인상을

22 정미애,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185쪽.

23 정미애,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186쪽.

24 『日本経済新聞』, 2011. 9. 13. [https://www.nikkei.com/article/DGXDZO34760000T10C11A9E10500/\(최종검색일: 2021. 3. 7.\)](https://www.nikkei.com/article/DGXDZO34760000T10C11A9E10500/(최종검색일: 2021. 3. 7.)).

25 『日本経済新聞』, 2011. 12. 29.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2902G_Z21C11A2MM8000/\(최종검색일: 2021. 3. 7.\)](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2902G_Z21C11A2MM8000/(최종검색일: 2021. 3. 7.)).

26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153쪽.

27 심미정,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94쪽;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154쪽.

포함한 ‘사회보장과 일체개혁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최저보장연금의 보류 등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약속했던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었고, 오자와를 비롯한 민주당 내 증세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²⁸ 6월 26일 중의원에서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높이는 증세 법안이 3당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오자와와 하토야마를 포함한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6명이 기권·결석했다. 오자와는 7월 2일 중의원 의원 38명, 참의원 12명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집권 공약이던 보편적 복지 노선이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수정되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된 것이 오자와가 탈당을 결심한 배경이었다.²⁹ 오자와는 7월 11일 ‘국민생활이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당을 결성했으며, 소비세 증세 철회와 탈원전을 강조했다.³⁰ 하토야마 전 총리나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상 등은 반대에는 동참했으나 탈당에 합류하지는 않았다.³¹ 노다 총리를 ‘자민당의 노다파’라고 비판했던 하토야마의 지적은 민주당 내의 정책 대립을 잘 보여 주고 있다.³² 오자와가 이끄는 국민생활이제일당은 이후 일본미래당을 거쳐 당명변경을 통해 생활당, 자유당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민나노당 출신이 주축이 된 유이노당(結いの党)과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 출신이 주축이던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가 2014년 9월에 통합하여 유신당이 되었는데, 민주당은 오사카유신회 계열이 빠진 유신당과 함께 민진당을 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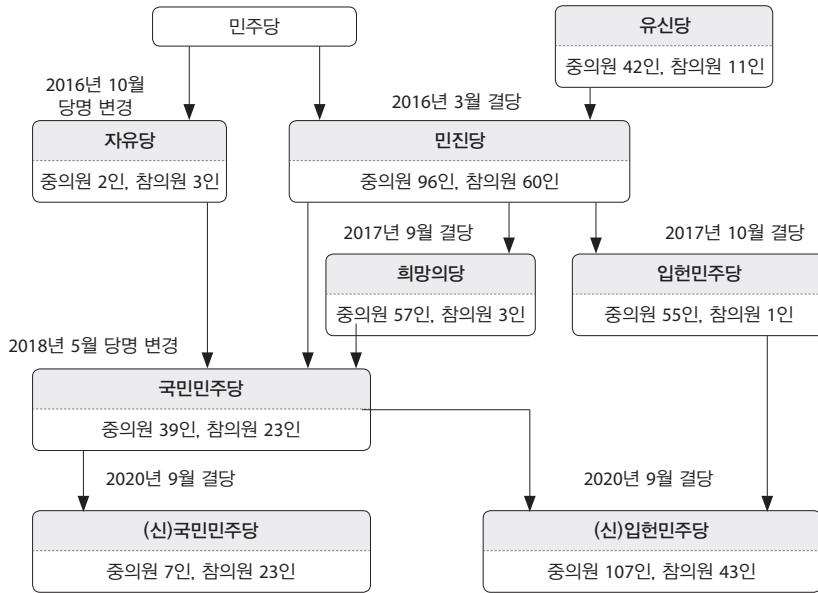
28 『日本経済新聞』, 2012. 6. 15.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1504S_V10C12A6MM8000/(최종검색일: 2021. 3. 7.).

29 심미정,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106쪽.

30 『日本経済新聞』, 2012. 7. 11.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1102A_R10C12A7000000/(최종검색일: 2021. 3. 7.).

31 白石隆, 「消費増税法案に反対した民主党議員に断固たる処分を」, <https://www.nippon.com/ja/column/f00010/>(최종검색일: 2021. 3. 7.).

32 박철희,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62쪽.



〈그림 1〉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통합

출처: 「旧民主党の勢力変遷」『朝日新聞』, 2020. 8. 28.)을 기초로 저자 수정.

3. 제3정당의 이합집산과 민진당

1) 야당 재편 노력과 유신당 결성

오자와 그룹의 탈당 이후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수가 231석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하여 10여 개 이상의 야당이 경쟁하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제3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몇몇 정당들만 성과를 거두었다. 선거 결과 294석을 획득한 자민당은 31석을 차지한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57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고 오자와 그룹이 주축이던 일본미래당(日本未来の党)은 50석 이상을 상실하여 9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2년 중의원 선거의 특징으로 신생 정당의 약진을 들 수 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의 오사카유신회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태양의당(太陽の党)이 합당하여 결성된 일본유신회는 54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3당이 되었으며, 2009년 중

의원 선거에서 5석을 얻었던 민나노당(みんなの党)은 18석을 획득하여 상당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하게 된 이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간의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나노당은 2009년 자민당을 탈당한 와타나베 요시미가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으로 2010년의 참의원 선거와 2012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 당을 틀을 유지하며 연대를 강화하지는 와타나베 대표와 일본유신회 및 민주당과의 신당 결성에 대해 적극적이던 에다 겐지(江田憲司) 간사장의 갈등이 심화되었다.³³ 당 운영 방식과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입장 차 또한 두 사람의 갈등을 끌어 더욱 깊게 했는데, 같은 해 8월 와타나베 대표의 에다 간사장 해임을 두고 가키자와 미토(柿沢未途) 의원이 탈당했으며, 12월에는 에다를 비롯한 14인이 민나노당에서 탈당했다.³⁴ 이들은 신당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노조계열과 보수계열이 대립하고, 일본유신회는 이시하라와 하시모토 계열 간의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야당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³⁵ 에다는 2013년 12월 10일에 규제개혁과 지역주권을 강조하는 초당파 의원들을 규합하여 ‘기득권을 타파하는 모임’(既得権益を打破する会)을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등이 참여했다.³⁶ 2013년 12월 18일, 민나노당 탈당자들이 중심이 되어 유이노당을 결성했으며 에다를 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선언한 이후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모색했으며, 유이노당과의 합당을 추진했

33 『The Huffington Post(Japan)』, 2013. 12. 8. https://www.huffingtonpost.jp/2013/12/08/your-party-kenji-eda_n_4409486.html(최종검색일: 2021. 3. 13.).

34 『産経新聞』, 2014. 11. 29.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41129/pl1411290019-n2.html>(최종검색일: 2021. 3. 13.).

35 『テレビ朝ニュース』, 2013. 12. 9. https://news.tv-asahi.co.jp/news_politics/articles/000017605.html(최종검색일: 2021. 3. 13.).

36 『既得権益を打破する会 設立趣意書(案)』, <http://www.eda-k.net/column/everyday/2013/12/2013-12-01.html>(최종검색일: 2021. 3. 13.).

〈표 2〉 2014년 중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과 각 당의 입장

공약	자민당	유신당	민주당	공산당
소비세 증세	O	X	△	X
원전 재가동	O	△	△	X
집단적 자위권	O	△	△	X

출처: 『時事通信』, 2014. 12. 2. https://www.jiji.com/jc/graphics?p=ve_pol_election-syugiin20141202j-04-w680(최종검색일: 2021. 5. 26.).

다. 하지만 강경 보수세력으로 야당 재편보다는 자민당과의 연대를 중시하던 이시하라 공동대표가 유이노당이 호헌정당(護憲政黨)이라는 이유로 반발했으며,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도 하시모토 대표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³⁷ 2014년 5월 말 이시하라는 하시모토와의 회동을 통해 자주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이노당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³⁸ 그 결과 2014년 6월에 일본유신회의 분당이 결정되었고, 8월에 이시하라를 중심으로 차세대당(次世代の党)이 결성되었다. 2014년 9월 일본유신회와 유이노당이 합당하여 유신당을 설립했고, 각 당의 대표이던 하시모토와 에다가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하시모토 공동대표는 야당 재편의 합류 대상으로 민주당의 각료 출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에하라 세이지, 호소노 고시, 아즈미 준(安住淳),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노다 요시히코를 거론했는데,³⁹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었다. 중의원 선거가 예상되면서 2014년 11월에 민주당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국회대책위원장이 야당 연대와 선거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적 쟁점이 남아 있었는데 민주당이 소비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유신당과 민나노당은 증세 반대를 분명히

37 「『第3極』日本維新の会』分裂, 混迷深まる野党再編」, <https://www.nippon.com/ja/behind/I00065/>(최종검색일: 2021. 3. 13.).

38 『日本経済新聞』, 2014. 5. 28.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2803F_Y4A520C1M1M8000/(최종검색일: 2021. 3. 13.).

39 『日本経済新聞』 2014. 11. 5. https://r.nikkei.com/article/DGXLASF04H3I_U4A101C1PP8000?s=6(최종검색일: 2021. 3. 10.).

했다.⁴⁰

2) 유신당의 분열과 민진당 성립

2014년 12월 14일의 중의원 선거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이 291석, 공명당이 3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73석을 획득하여 선거 전보다 11석이 증가했지만 당대표인 가이에다 반리가 도쿄 1구에서 패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 유신당은 4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차세대당은 2석으로 선거 전보다 17석이 감소하는 참패를 당했다. 반면 공산당은 13석이 증가하여 21석을 차지하게 되었다.⁴¹

선거 후 유신당의 공동대표인 하시모토와 간사장인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가 사임했다. 2014년 12월 24일부터 단독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 에다는 마쓰노 요리히사를 간사장에 임명했다. 에다 대표는 12월 31일 인터뷰를 통해 새해에는 민주당 지지단체인 렌고(連合)와의 정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야당 재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⁴² 2015년 5월 17일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에 대한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하시모토는 오사카시장직 수행 이후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에다도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후 간사장이던 마쓰노가 유신당 대표로 취임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을 포함해서

〈표 3〉 2014년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득표율(%)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소선거구	48.10	1.45	22.51	8.16	13.30
비례대표구	33.11	13.7	18.33	15.72	11.37

출처: 総務省(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hugiin47/index.html, 최종검색일: 2021. 5. 26.).

40 『TV朝日』, 2014. 11. 12. https://news.tv-asahi.co.jp/news_politics/articles/000038620.html(최종검색일: 2021. 3. 13.).

41 『朝日新聞』, 2014. 12. 21. <http://www.asahi.com/senkyo/sousenkyo47/>(최종검색일: 2021. 3. 13.).

42 『日本経済新聞』, 2014. 12. 31. https://www.nikkei.com/article/DGKKASF30H3W_Q4A231C1PP8000/(최종검색일: 2021. 3. 14.).

폭넓게 결집하고 싶다. 100명 이상이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마쓰노는 또한 민주당과 유신당이 싸우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함을 강조했고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내(年内) 결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⁴³ 반면 유신당의 고문인 마쓰이 전 간사장은 ‘제2의 민주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본 정책이 일치하고 정부노조(官公勞)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⁴⁴ 민주당 출신인 마쓰노와 오사카유신회 출신인 마쓰이의 상반된 견해는 야당 재편을 둘러싼 유신당 내부의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5월부터 민주당과 유신당 간의 정책협의를 본격화되었다. 2015년 5월 25일 민주당의 에다노 간사장과 유신당의 가키자와 간사장 및 양당 국회 대책위원장이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며, 26일에는 양당의 정책조사 회장 회의를 통해 안보법제, 노동법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⁴⁵ 또한 유신당의 마쓰노 대표는 8월 31일로 예정된 민주당 오카다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에 대항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하며, 오카다와 개혁세력의 결집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⁴⁶ 반면 유신당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과 마쓰이 오사카부 지사는 2015년 8월 27일에 공식적으로 탈당 의사를 표명했다.⁴⁷

오사카유신회 계열의 이탈은 야당 재편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특히 가키자와 간사장이 8월 14일 야마가타(山形) 시장선거에 출마한 우메쓰 요세이(梅津庸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야마가타시를 방문한

43 『日本経済新聞』, 2015. 5. 24.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524H1A_U5A520C1PP8000/?s=6 (최종검색일: 2021. 3. 10.).

44 『産経WEST』, 2015. 5. 25. <https://www.sankei.com/west/news/150525/wst1505250041-n1.html> (최종검색일: 2021. 3. 10.).

45 <https://www.dpj.or.jp/tag/%E7%B6%AD%E6%96%B0%E3%81%AE%E5%85%9A> (최종검색일: 2021. 3. 14.).

46 『日本経済新聞』, 2015. 8. 30. https://r.nikkei.com/article/DGXLASF530H2M_Q5A830C1PE8000?s=6 (최종검색일: 2021. 3. 10.).

47 『産経WEST』, 2015. 8. 27. <https://www.sankei.com/west/news/150827/wst1508270051-n1.html> (최종검색일: 2021. 3. 14.).

사건이 갈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메쓰 후보는 민주당, 공산당 등 4당 추천 후보로 출마 예정이었다. 당시 유신당은 우메쓰를 추천하지 않았는데, 특히 오사카유신회 계열의 의원들이 공산당 추천 후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⁴⁸ 당내의 오사카유신회 계열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키자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고 간사장직 사임을 요구했지만, 마쓰노 대표는 구두로만 경고하는 데 그쳤다.⁴⁹ 결국 9월에 가키자와 간사장이 해임되긴 했지만 유신당 내부에 앙금이 남았고, 하시모토 전 대표는 10월 22일 트위터를 통해 가키자와가 “일본에서 제일 판단능력이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⁵⁰ 유신당의 분열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당 해산 및 유신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지만 오카다 대표는 아직은 성급한 논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⁵¹ 반면 렌고의 고가(古賀伸明) 회장은 민주당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⁵²

2015년 11월에 오사카유신회가 재결성되었고, 유신당은 12월에 개혁세력의 결집과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마쓰노를 대표로 재선출했다.⁵³ 민주당과 유신당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2015년 12월 7일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와 유신당의 마쓰노 대표가 만나 통일회파(統一會派) 결성에 합의했고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야당 세력 결집 의지를 확인했다.⁵⁴ 마쓰노는 12월 9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통

48 安積明子, 「維新の党「仮面夫婦」の破局は仕組まれていた」, <https://toyokeizai.net/articles/-/82324>(최종검색일: 2021. 3. 7.).

49 『日本経済新聞』, 2015. 8. 18.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518H3P_Y5A810C1PP8000/(최종검색일: 2021. 3. 7.).

50 『産経新聞』, 2015. 10. 22.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51022/plt1510220020-n1.html>(최종검색일: 2021. 3. 8.).

51 『産経新聞』, 2015. 9. 4.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50904/plt1509040049-n1.html>(최종검색일: 2021. 3. 14.).

52 『日本経済新聞』, 2015. 9. 11.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91624420R10C15A9PP8000/>(최종검색일: 2021. 3. 14.).

53 『日本経済新聞』, 2015. 12. 6.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06H0X_W5A201C1000000/(최종검색일: 2021. 12. 6.).

54 <https://www.dpj.or.jp/tag/%E7%B6%AD%E6%96%B0%E3%81%AE%E5%85%9A>(최종검색일: 2021. 3. 14.).

일회과 참여를 제안했으며, 2016년 초에는 하나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⁵ 2016년 2월 26일 유신당과 민주당이 신당 결성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⁵⁶ 신당의 당명으로 민주당은 입헌민주당을 제시했는데 유신당이 제안한 민진당(民進党)으로 당명이 결정되었다. 양당은 2016년 3월 27일 민진당을 결성하고 오카다 전 민주당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했다. 참여자는 민주당 중의원 71명, 참의원 59명, 유신당 중의원 21명, 참의원 5명이었는데 유신에서 합류한 중의원 21명 중 마쓰노 대표를 포함한 거의 절반이 2012년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물들이었다.⁵⁷ 민진당은 강령(綱領)을 통해 입헌주의를 강조했고 민주당의 노선을 반영하는 ‘공생사회’와 유신당이 강조하던 ‘재정개혁, 정치개혁, 지역주권개혁’을 명기했으며, 또한 외교안보에 있어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명시했다.⁵⁸

2016년 7월 10일의 참의원 선거는 야당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협력을 통해 민진, 공산, 사민, 생활(生活の党) 야4당이 32개의 1인 선거구 중 11석을 획득하여 약간의 성과를 보였지만, 3인 이상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난립하여 단일한 비례대표 추천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 당시 여당은 야당 연합에 공산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공 대 민공(自公対民共) 대결 구도를 강조했는데, 이는 보수층과 무당파층의 지지를 높이려는 의도였다.⁵⁹

3) 공산당 협력과 민진당의 내부갈등

참의원 선거 직후인 2016년 7월 31일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가 40% 이상을 득표하여 압승을 거

55 『毎日新聞』, 2015. 12. 10. <https://mainichi.jp/articles/20151210/k00/00m/010/068000c>(최종검색일: 2021. 3. 10.).

56 <https://www.dpj.or.jp/tag/%E6%96%B0%E5%85%9A%E5%8D%94%E8%AD%B0%E4%BC%9A>(최종검색일: 2021. 3. 13.).

57 <https://www.nippon.com/ja/features/h00136/>(최종검색일: 2021. 3. 8.).

58 <https://www.minshin.or.jp/about-dp/principles>(최종검색일: 2021. 3. 11.).

59 『毎日新聞』, 2016. 7. 11. <https://mainichi.jp/articles/20160711/ddm/002/010/145000c>(최종검색일: 2021. 3. 15.).

〈표 4〉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득표율

	자민당	공명당	민진당	공산당	오사카유신회
선거구	39.94	7.54	25.14	7.26	5.84
비례대표구	35.91	13.52	20.98	10.74	9.20

출처: 総務省(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angiin24/index.html, 최종검색일: 2021. 5. 26.).

두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동 추천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대신은 27.4% 득표에 그쳤으며 야4당 공동 추천을 받은 도리고에 순타로(鳥越俊太郎)는 20%를 조금 넘겨 3위에 머물렀다.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으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결과였다. 한편 민진당의 대표인 오카다는 도쿄도지사 선거 이전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언했는데, 이는 자신이 차기 중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추진 중이던 민진당-공산당 연대가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⁶⁰

렌호(蓮舫), 마에하라 세이지,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가 출마한 2016년 9월 15일의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 협력과 여당이 제기한 헌법개정 문제였다.⁶¹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호세이대학 교수는 민진당과 공산당의 협력에 대해 “공산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정권교체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하지만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고” 평했다.⁶² 1차 투표 결과 오카다 전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의 지지를 받은 렌호가 과반수를 넘겨 당대표에 당선되었는데,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 사회당 당수 이후 30여 년 만에 여성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사례였다.⁶³

60 <https://go2senkyo.com/articles/2016/08/06/24001.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61 『産経新聞』, 2016. 9. 2.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60902/pl1609020017-n1.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62 山口二郎, 「蓮舫新代表は人材を集め次の選挙を戦う態勢を作れ」, <https://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16092100001.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63 『朝日新聞』, 2016. 9. 12. <https://www.asahi.com/articles/ASJ9H4RP9J9HUTFK00J.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렌호 대표가 과거 민주당 분열에 책임이 있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를 간사장에 임명하자 당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다는 공산당과의 협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오자와 이치로와의 연대에 지극히 부정적이었지만 간사장 취임 후에는 강한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야당 간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렌호 대표 또한 야당 협력을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다.⁶⁴ 이후 중의원 보궐선거와 지사(知事) 선거 등에서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 협력이 계속되었는데,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당내 보수파 의원들로부터의 반발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노다 내각에서 외교·안보 담당 장관을 지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가 2017년 4월 1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이라는 당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근에는 민진당의 기본 정책이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리얼리즘’과 공산당의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⁶⁵ 한편, 대표대행이던 호소노가 4월 10일 발매된 주오코론(中央公論)을 통해 자신의 헌법개정안을 공표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한 당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표한 것이었다.⁶⁶ 이후 호소노는 당직을 사퇴하고 8월 8일에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탈당 이유 중 하나로 보수파 정치인으로서 공산당과의 협력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⁶⁷ 한 달 정도 전인 7월 2일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지스에 겐조(藤末健三) 참의원 의원도 “민진당이 선거 협력을 명목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 같은 정책이념을 가진 동료들과 중도 정당을 창설하고 싶다”고 말했다.⁶⁸ 이처럼 공산당과의

64 『朝日新聞』, 2016. 9. 16. <https://www.asahi.com/articles/ASJ9J4W7LJ9JUTFK00M.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65 『産経ニュース』, 2017. 4. 10.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70410/pl1704100017-n1.html>(최종검색일: 2021. 3. 15.).

66 『SankeiBiz』, 2017. 4. 13. <https://www.sankeibiz.jp/macro/news/170413/mca1704131455008-n1.htm>(최종검색일: 2021. 3. 15.).

67 室伏謙一, 「仲間ゼロでも細野氏が民進を見限ったワケ」, <https://president.jp/articles/-/22790?page=1>(최종검색일: 2021. 3. 15.).

68 『毎日新聞』, 2017. 7. 4. <https://mainichi.jp/articles/20170704/ddm/005/010/052000c>(최종검색일: 2021. 3. 15.).

협력에 반감을 가진 보수파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민진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이 증가하는 중에 2017년 7월 2일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の会)가 49석을 획득한 반면 자민당은 23석에 그쳤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는 도민퍼스트회와 선거협력을 추진했으며, 고이케를 지지하는 세력은 공명당을 포함 79석을 획득하여 과반인 64석을 넘겼다. 선거 결과에 대해 자민당 도련(都連)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회장은 참패의 이유로 “국정의 문제, 국회의 원 문제가 크다. 자민당에 대한 분노였다”고 말하면서 아베 총리의 가계학원(加計学園) 특혜 제공 논란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의 실언 등이 문제였음을 시사했다.⁶⁹ 단지 5석을 차지하며 참패한 민진당과 달리 공산당은 19석을 획득했다.⁷⁰

당시 선거를 앞두고 도민퍼스트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민진당에서는 탈당자가 급증했는데, 2017년 5월 1일 기준, 민진당 계열의 회파인 도쿄개혁의원단(東京改革議員団)에서는 18명 중 9명이 탈당하고 민진당의 공인후보(公認候補) 36명 중에서 14명이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이탈이 계속되었다.⁷¹ 탈당 문제 외에도 민진당의 부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진당의 핵심 지지 조직인 렌고 도쿄 지부는 선거를 앞둔 3월 3일, 민진당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도민퍼스트회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⁷² 선거 직후 7월 초에 아시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에 대한 지지율은 5~6%에 불과했다.⁷³

69 『読売新聞』, 2017. 7. 3. <https://www.yomiuri.co.jp/feature/20170530-OYT8T50074/>(최종검색일: 2021. 3. 24.).

70 https://www.senkyo.metro.tokyo.lg.jp/uploads/h29togi_kaihyou_touhabetoutousen-2.pdf.

71 『読売新聞』, 2017. 7. 3. <https://www.yomiuri.co.jp/feature/20170530-OYT8T50074/>(최종검색일: 2021. 3. 24.).

72 『日本経済新聞』, 2021. 4. 7.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07H4F_X00C17A4CC0000/(최종검색일: 2021. 4. 18.).

73 平木雅己, 「内閣不支持率過去最高も, 民進党も過去最低に」, <https://go2senkyo.com/articles/2017/07/14/>

도쿄도의회 선거의 결과는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⁷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당당상은 “이러한 결과를 역사적 대패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자민당의 본 모습을 다시금 묻게 된 선거다.”라고 말했다. 선거 다음날 인터뷰에서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지방의원 선거였다는 점을 들어 연임할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⁷⁵ 하지만 대표 책임론과 함께 노다 요시히코 간사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당 지도부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면서 7월 27일 사임하게 되었다.⁷⁶

4. 야당 재편의 좌절과 재시도

1) 희망의당 창당과 민진당의 분열

2017년 9월 1일의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가 에다노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공산당을 배제한 야당 재편을 추구하는 마에하라는 대표 선거 전에 “민진당의 깃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던 마에하라는 소비세를 포함한 증세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산당과의 선거협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리버럴 세력의 지지를 받던 에다노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 반대했으며 민진당과 공산당 간 선거협력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⁷

31256.html(최종검색일: 2021. 3. 24.).

74 <https://jp.reuters.com/article/tokyo-assembly-election-idJPKBN19N0GB>(최종검색일: 2021. 3. 24.).

75 『産経新聞』, 2017. 7. 4.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70704/pl1707040059-n1.html>(최종검색일: 2021. 4. 6.).

76 『産経新聞』, 2017. 7. 9.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70709/pl1707090026-n1.html>(최종검색일: 2021. 4. 17.).

77 『日本経済新聞』, 2017. 9. 1.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01H30_R00C17A9000000/(최종검색일: 2021. 4. 7.).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은 분열하게 되었다. 아베 정부는 9월 28일 임시 각의를 통해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해산 선언은 여러 스캔들로 인한 도쿄도의회선거 패배와 내각 지지율의 하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야당이 선거 태세를 갖추기 전에 해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⁷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쿄도지사인 고이케는 9월 25일 희망의당(希望の党) 창당을 선언했고 27일에는 ‘너그러운(寛容な) 개혁보수정당’을 표방하며 당 강령을 발표했다.⁷⁹ 같은 날 민진당의 마에하라 대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민진당 입후보예정자가 희망의당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민진당을 해체하고 희망의당에 합류하는 것이었다.⁸⁰ 민진당은 9월 28일에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희망의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⁸¹ 다만 중의원 의원들은 탈당 후 희망의당에 합류하지만,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민진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렌고(連合)는 담화를 통해 민진당의 희망의당 합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⁸²

민진당이 희망의당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야당세력 중 공산당 및 사회당과의 선거협력이 어려워지게 되었다.⁸³ 특히 희망의당 대표인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9월 29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과 헌법개정 등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공인희망자를 배제한다”고 공언하면서⁸⁴ 민진당 내 호헌세력

78 小野江公利, 「小池新党失速と野党共闘の失敗: 「大義なき解散」でも自民大勝」. <https://www.nippon.com/ja/currents/d00363/>(최종검색일: 2021. 3. 29.).

79 『日本経済新聞』, 2017. 9. 27.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527H0S_X20C17A9000000/(최종검색일: 2021. 4. 25.).

80 『毎日新聞』, 2017. 9. 27. <https://mainichi.jp/articles/20170928/k00/00m/010/120000c>(최종검색일: 2021. 3. 29.).

81 <https://jp.reuters.com/article/japan-democratic-party0fhope-idJPKCN1C30ND>(최종검색일: 2021. 4. 19.).

82 『日本経済新聞』, 2017. 9. 29.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528H89_Y7A920C1PP8000/?s=0(최종검색일: 2021. 4. 19.).

83 『中日新聞』, 2017. 9. 30. <https://static.chunichi.co.jp/chunichi/archives/article/senkyo/shuin2017/fuk/CK2017093002000266.html>(최종검색일: 2021. 4. 10.).

84 『The Huffington Post(Japan)』, 2017. 9. 30. https://www.huffingtonpost.jp/2017/09/30/liberal_a_23228108/(최종검색일: 2021. 4. 10.).

〈표 5〉 2017년 중의원 선거 주요 공약과 각 당의 입장

공약	자민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헌법9조 개정	O	O	X	X
원자력 발전	O	△	△	X
소비세 인상	O	△	△	X

출처: 『時事通信』, 2017. 10. 10(https://www.jiji.com/jc/graphics?p=ve_pol_election-syugiin20171010j-19-w680, 최종검색일: 2021. 5. 26.).

〈표 6〉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득표율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소선거구	47.82	1.50	20.64	8.56	9.02
비례대표구	33.28	12.51	17.36	19.88	7.90

출처: 総務省(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hugiin48/index.html, 최종검색일: 2021. 5. 26.).

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민진당 내의 리버럴 계열 의원들은 10월 3일 에다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입헌민주당을 결성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입헌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소선거구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인 의향을 나타냈다.⁸⁵ 민진당의 야마가타현련(山形県連) 간부는 고이케 지사의 ‘배제의 논리’를 비판하며 희망의당이 아닌 ‘절망의당’이라고 비난했으며 도쿄도의 민진당 소속의원들 다수가 입헌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⁸⁶

2017년 10월 22일의 선거 결과 입헌민주당은 40석이 증가하여 55석을 획득했으며, 희망의당은 7석이 줄어든 50석을 차지하는 패배를 당했다. 이는 고이케의 배제 발언으로 인한 야당 분열과 고이케 본인의 중의원 선거 불출마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선거 이후 오카다 전 민진당 대표는 노다 전 총리, 에다 전 대표 등 무소속으로 당선된 민진당계 중의원 의원 13인을 규

85 『日本経済新聞』, 2017. 10. 3.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1818450T01C17A0MM0000/>(최종검색일: 2021. 3. 29.).

86 『読売新聞』, 2017. 10. 23. <https://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17/news/20171023-OYT1T50134.html?from=tw>(최종검색일: 2021. 4. 19.).

합하여 무소속 모임(無所属の会)이라는 회파를 구성했다.⁸⁷ 반면 총선에서 민진당 당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마에하라 대표는 11월 초 민진당을 탈당하여 희망의당에 입당했다. 마에하라 대표의 사임 이후 민진당은 10월 31일에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참의원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2) 국민민주당 결성

민진당의 오쓰카 대표는 민진계의 재결집을 위한 신당 구상을 추진했으며, 입헌민주당 및 희망의당과의 통일회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간사장은 2017년 12월 26일 마시코 테루히코(増子輝彦) 민진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이념·정책이 다른 희망의당과 통일회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⁸⁸ 민진당은 렌호 전 대표가 입헌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당내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11월 초에 실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14%를 기록한 반면 희망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2% 정도에 불과했다.⁸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방송에서 “희망의당과 이념·정책이 다르다. 회파를 구성하는 것은 자기부정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⁹⁰

민진당과 희망의당은 통일회파 결성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자민당의 안보법제에 대한 대응,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두고 당 내부의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었다.⁹¹ 결국 민진당과 희망의당은 2018년 1월 17일 협의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민진당 내에서는 입헌민주당과도 협상해

87 『産経新聞』, 2017. 10. 26.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71026/plt1710260016-n1.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88 『毎日新聞』, 2017. 12. 27. <https://mainichi.jp/articles/20171227/k00/00m/010/162000c>(최종검색일: 2021. 4. 19.).

89 『日本経済新聞』, 2017. 11. 27.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23917330W7A121C1PE8000/>(최종검색일: 2021. 4. 19.).

90 『産経ニュース』, 2018. 1. 7.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107/plt1801070014-n1.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91 『朝日新聞』, 2018. 1. 15. <https://www.asahi.com/articles/ASL1H45XML1HUTFK007.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야 한다거나 희망의당과는 이념과 정책이 다르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7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과 희망의당의 합당이 논의될 당시 후보자 조정을 담당했던 호소노 고시에 대한 불신감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⁹² 한편 희망의당 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되었는데,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중의원 의원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성향인 8명의 의원들이 분당을 요구한 반면 희망의당 창당 멤버로 안보 법제에 대한 평가에서 오구시와 대립하는 호소노 고시 중의원 의원 등은 잔류의 뜻을 밝혔다.⁹³

통일회파 구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희망의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던 민진당의 오쓰카 대표는 3월 말 간부회의를 통해 희망의당과 함께 신당을 출범시킬 뜻을 굳혔다.⁹⁴ 4월 초 민진당과의 신당 결성 협의를 결정한 희망의당의 다마키 대표는 ‘너그러운 개혁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⁹⁵ 민진당과 희망의당은 4월 24일 협의를 통해 당명을 ‘국민민주당(국민당)’으로 결정했다. 민진당이 당명과 강령을 변경하고, 희망의당이 해산하여 합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신당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은 탈당해야 했는데 오카다 전 민진당 대표, 노다 전 총리, 에다 전 대표대행 등은 탈당을 선택했다.⁹⁶ 5월 7일 있었던 국민민주당의 창당대회에 참가한 중·참의원은 모두 62명으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63명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⁹⁷ 오쓰카와 다마키가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92 『日本経済新聞』, 2018. 1. 17.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5816960X10C18A1PP8000/>(최종검색일: 2021. 4. 19.).

93 『毎日新聞』, 2018. 2. 9. <https://mainichi.jp/articles/20180209/ddm/005/010/136000c>(최종검색일: 2021. 4. 19.).

94 『産経新聞』, 2018. 3. 29.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329/plt1803290004-n1.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95 『朝日新聞』, 2018. 4. 4. <https://www.asahi.com/articles/ASL444JDSL44UTFK00G.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96 『産経新聞』, 2018. 4. 26.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426/plt1804260004-n1.html>(최종검색일: 2021. 4. 19.).

97 『毎日新聞』, 2018. 5. 8. <https://mainichi.jp/articles/20180508/k00/00m/010/059000c>(최종검색일: 2021. 4. 19.).

3) 선거 협력과 야당 재편

2019년의 참의원 선거를 위해 야당 간의 선거 협력 움직임이 계속되긴 했지만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는 “나가타초(永田町)의 숫자 맞추기에 가담하지 않는다”, “복수구(複數区)는 각 야당이 후보자를 내세우고 질차탁마하는 가운데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었다.⁹⁸ 이는 선거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2019년의 참의원 선거 결과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각각 17석과 6석을 획득했는데,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이 획득한 32석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결과였다.

참의원 선거 이후,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와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회담을 통해 참의원 선거에서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의원 선거를 향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⁹⁹ 국민민주당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차기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야당 협력을 계속할 것인지, 독자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자민당 연립정부에 참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입헌민주당 및 사회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¹⁰⁰ 이와 같이 선거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2018년 8월 5일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민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중의원 회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받아든 입헌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데 대해, 에다노가 야당통합에 대한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전환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¹⁰¹ 반면 각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국민민주당은 8월 28일 총회에서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당의 중도개혁노선이 야당공투

98 <https://go2senkyo.com/articles/2019/06/21/42021.html>(최종검색일: 2021. 4. 25.).

99 https://www.jcp.or.jp/akahata/aik19/2019-07-27/2019072701_01_1.html(최종검색일: 2021. 4. 25.).

100 『日本経済新聞』, 2019. 8. 2.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138450S9A800C1EA3000/>(최종검색일: 2021. 4. 25.).

101 『日本経済新聞』, 2019. 8. 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21000V00C19A8PP8000/>(최종검색일: 2021. 4. 25.).

〈표 7〉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및 주요 야당의 획득 의석 수(전체 124석)

여당		야당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57	14	10	6	17	7

출처: 朝日新聞 Digital(<https://www.asahi.com/senkyo/senkyo2019/>, 최종검색일: 2021. 4. 25.).

(야당협력)에 매몰되어 이념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에게 호소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¹⁰² 하지만 야당 관계의 기본적 흐름은 통합이었다. 후쿠야마 입헌민주당 간사장과 히라노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2019년 12월 27일의 회담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양당 합당을 위한 당대표 간 협의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¹⁰³

양당 간의 협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중단되는 등 위기를 겪었지만 공식·비공식 협의가 계속되면서 2020년 8월에는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온전한 합당에 이르지 못하고 국민민주당 의원 일부가 입헌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가 되었다. 국민민주당은 2020년 8월 19일 의원 총회를 통해 국민민주당을 해체하고, 입헌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¹⁰⁴ 하지만 대표인 다마키는 “소비세 감세 등 핵심 정책에 대해 일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념·정책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당 결성 의지를 표명했다.¹⁰⁵ 지지 기반 측면에서 보면 당 강령에 원전제로(원전폐기)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입헌민주당과 달리, 전력총련(電力総連) 및 전기연합(電機連合)과 같은 민간 산별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⁶ 결국 국민민주당은 입

102 『日本経済新聞』, 2019. 8. 28.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110760 Y9A820C1PP8000/>(최종검색일: 2021. 4. 25.).

103 『日本経済新聞』, 2019. 12. 28.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3936130 X21C19A2EA3000/>(최종검색일: 2021. 5. 7.).

104 『時事通信』, 2020. 8. 19.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81900746&g=pol>(최종검색일: 2021. 5. 1.).

105 『読売新聞』, 2020. 8. 12.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00811-OYT1T50202/>(최종검색일: 2021. 5. 7.).

106 『政治マガジン』, 2020. 9. 23.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45139.html>(최종검색일: 2021. 5. 1.).

헌민주당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 의원들이 별도의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2020년 9월 15일 입헌민주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구)국민민주당 의원 40명을 포함 중참의원 150명 규모의 제1야당을 발족했다.¹⁰⁷ 같은 날 국민민주당 또한 개혁중도정당을 표방하며 중참의원 15인이 참여하는 신당(국민민주당)을 결성했다. 다마키 대표는 정책 차이를 이유로 정당 통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신)입헌민주당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¹⁰⁸ 대표 대행에는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이 임명되었는데, 다마키 대표의 언급과 달리 마에하라는 공산당과의 선거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는 했다. 그는 “비자민·비공산 보수(保守)라고 자부했지만 선거와 국회활동에서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면서 일본유신회와 같은 보수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⁹

2020년 초부터 전개된 코로나19 사태는 일본 국내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병이 악화되자 스스로 사임하게 되었고, 2020년 9월 16일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아베의 퇴장과 자민당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의 증가는 야당으로서의 다음 선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다. 입헌민주당에 합류한 오자와 이치로는 2020년 9월 21일 강연을 통해 야당 통합을 통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⁰ 입헌민주당은 사민당에도 합류를 요청했는데, 사민당은 2020년 11월 14일의 임시 당 대회를 통해 입헌민주당 합류 희망자들의 탈당을 허용하기로 결정

107 『毎日新聞』, 2020. 9. 15. <https://mainichi.jp/articles/20200915/k00/00m/010/197000c>(최종검색일: 2021. 5. 1.).

108 『時事通信』, 2020. 9. 15.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91500997&g=pol>(최종검색일: 2021. 5. 1.).

109 『政治マガジン』, 2020. 9. 23.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45139.html>(최종검색일: 2021. 5. 1.).

110 『時事通信』, 2020. 9. 21.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92100248&g=pol>(최종검색일: 2021. 5. 1.).

했다.¹¹¹ 다만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대표는 잔류를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들의 움직임이 통합의 방향으로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8월부터 중·참의원 통일회파를 유지하던 국민민주당은 2020년 10월 23일 최대 지원단체인 렌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헌민주당과의 회파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¹¹² 또한 렌고 산하의 전 도요타(全トヨタ) 노동조합연합회가 여당과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명확해졌는데,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즉 35만 7,000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 도요타 노련을 비롯하여 자동차총련(自動車総連)의 입헌민주당 지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¹¹³

5. 결론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자민당은 2014년, 2017년의 중의원 선거, 2013년, 2016년, 201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유례없는 승리의 배경에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나 보수주의 확산 전략,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했지만 야당의 분열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야당 통합을 통해 2009년 8월 집권에 성공했던 민주당은 소비세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당내 권력 갈등으로 인해 분열하게 되었고,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다시 야당이 되었다. 이후 자민당의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구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야당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지만, 이념·정책적인 차이로 인해 야당 통합은 물론 선거 협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111 『時事通信』, 2020. 11. 14.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11400371&g=pol>(최종검색일: 2021. 5. 1.).

112 『時事通信』, 2020. 10. 23.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02300906&g=pol>(최종검색일: 2021. 5. 1.).

113 『時事通信』, 2020. 11. 2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11901119&g=pol>(최종검색일: 2021. 5. 1.).

소비세 인상, 원자력 발전, 헌법 9조 개정 문제가 야당 통합을 어렵게 하는 주된 쟁점이었으며, 공산당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야당 내 보수 세력과 리버럴 세력 간의 관점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정당 통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수직적 통합성의 부족으로 인해 명확한 이념·정책적 방향성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응집된 힘을 발휘했던 것과 같이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다가올 중의원 선거에서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현재의 통합 수준은 민주당 정권의 몰락 이후 가장 진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이 주요 야당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2020년 9월에 새롭게 결성된 (신)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아베 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중의원 의원 임기가 2021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이 기존의 이념·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내세우며 통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선거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